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`집권 2기` 모양새 만들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.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. 대선 결과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차기 대통령을 행세하면 미국에서 초유의 `두 명의 대통령`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   
  
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(현지시간) "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현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를 대통령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략 실행에 나섰다"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.   
  
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개각이 거론된다. 이전부터 해임설이 나돌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,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(FBI) 국장이 교체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. 백악관 관계자는 "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충성했는지, 누가 유능했는지를 정하는 일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`집권 2기` 모양새 만들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.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. 대선 결과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차기 대통령을 행세하면 미국에서 초유의 `두 명의 대통령`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   
  
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(현지시간) "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현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를 대통령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략 실행에 나섰다"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.   
  
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개각이 거론된다. 이전부터 해임설이 나돌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,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(FBI) 국장이 교체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. 백악관 관계자는 "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충성했는지, 누가 유능했는지를 정하는 일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`집권 2기` 모양새 만들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.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. 대선 결과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차기 대통령을 행세하면 미국에서 초유의 `두 명의 대통령`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   
  
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(현지시간) "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현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를 대통령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략 실행에 나섰다"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.   
  
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개각이 거론된다. 이전부터 해임설이 나돌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,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(FBI) 국장이 교체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. 백악관 관계자는 "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충성했는지, 누가 유능했는지를 정하는 일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`집권 2기` 모양새 만들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.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한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.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의 조언을 받고 급한 대로 세대분리 신청을 위해 인근 조그마한 공실을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라고 밝혔다.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을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을 만족해야 한다.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을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,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.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에서는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.

집을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.